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KAC 한국 예술원/문화창작예술학부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1회 KAC 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행복의 저금통"
수상내역	대상
작가	박진성
공모분야	시나리오
줄거리	<p>세 명 은행의 기생충, 악성종양 등 안 좋은 별명만 가진 은행원 호진. 그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자신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사람들이 보기엔 기생충과 악성종양에 더 가깝다. 결국 호진은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지점장에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시 에는 해고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암 소식 까지 전해 듣는다. 절대 해고를 당할 순 없는 호진에게 닥친 할아버지에게 행운을 불러준다는 저금통을 받게 된다. 저금통은 호진을 조금씩 변하게 해준다.</p>

S# 1 세명 은행

몇 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은행원들이 고객들과 상담 중이다. 창구 뒤로 호진(32)이 급하게 들어온다.

명주 (눈짓으로 지점장의 방을 가리키는)

호진이 한숨을 쉬는

S# 2 지점장의 방

호진이 넥타이를 조여 매고 조심히 문을 연다.

지점장 (놀리는)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호진 저.. 정 대립니다.

지점장 농담도 참. 설마 대리! 주제에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지점장(45)이 호진에게 자리를 안내한다.

지점장 어서 앉으시죠.

호진이 자리에 앉는다. 지점장이 차와 커피가 구비된 정수기 쪽으로 간다.

지점장 커피로 하시겠어요? 녹차로 하시겠어요?

호진 네?.. 아 그럼 전 녹차로..

지점장 (화난) 뭐? 녹차? (홍분한) 아주 뭐 그냥 녹차 마시러 보성이라도 갈까? 어!

호진 (주눅 든) 죄송합니다.

지점장 다시 지각해봐. 그땐 보성으로 끝나지 않아. 알았어?!

호진 (더욱 주눅 든) 예..

S# 3 세명 은행

은행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다. 호진이 자리에서 마우스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보면 호진이 게임을 하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 블루 스크린이 뜬다. 호진이 악! 하고 놀란다.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이 호진을 쳐다본다. 지점장이 방에서 나온다.

지점장 무슨 일이야?

호진 (안절부절 하는) 별..별거 아닙니다. 그냥..

명주 (땀 곳을 보며, 무심하게) 게임하다가 렉! 났습니다. 렉!

호진이 명주(32)에게 눈치를 준다. 지점장이 화가나 호진을 쳐다본다. 호진이 어색하게 웃는다.

S# 4 지점장의 방

지점장이 호진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호진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지점장 (가슴을 쿡쿡 찌르며) 너 혼자 못 채웠어. 너 때문에 내가 위에서 혼나야 돼? 어?

호진 죄송합니다. 그치만..

지점장 일주일.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할당량 못 채우면.. 해고야.

S# 5 세명 은행 뒷문

호진이 누군가와 통화 하고 있다. 호진의 표정이 애걸하는 표정에서 점점 무표정으로 변한다.

호진 (주머니에 손을 넣는) 그래 잘 알지 (하늘을 본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자.

호진이 전화를 끊고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통화 연결 음이 울리다 멈춘다.

호진 (반갑게) 어 성재야. 난데 그때 말 했던 펀드 (톡 끊긴다) 야. 야!

호진이 전화를 주머니에 넣는다.

S# 6 세명 은행

호진이 은행으로 들어와 자기 자리에 앉는다.

명주 뭐하다 온 거야? 고객들 기다리잖아.

호진 (통명스럽게) 미안, 잠깐 일이 있어서.

명주 넌 만날 왜 그러냐?

호진 (짜증난) 뭐가? 미안하다고. 일이 있었다니깐?

명주 열심히 좀 해보라고. 다른 사람들 좀 봐. 너처럼 놀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호진 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방금도

명주 (끊으며) 그건 니 기준이지. 다른 사람들 보기엔 넌 그냥. 월급만 축내는 짐꾼이라고.

호진의 표정이 굳는다. 호진 앞으로 고객이 다가 오자 명주가 고개를 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S# 7 놀이터 / 밤

찌그러진 맥주 캔 더미 위로 맥주 캔 하나가 떨어진다. 그네에 앉은 호진이 검은 봉지에서 맥주 캔 하나를 더 꺼내 판다. 호진이 쪽 들이킨다.

호진 지가 무슨 상사야 뭐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난 왜 이렇게 불행 할까?

호진 옆에서 한 할아버지(67) 가 앉아 앞만 보고 있다. 호진이 할아버지를 발견 하
고 깜짝 놀란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호진을 본다.

할아버지 (씩 웃으며) 자네.. 행복해지고 싶나?

할아버지를 보는 호진.

S# 8 호진의 집

호진이 탁상 위에 놓인 금색 돼지 저금통을 뺨히 쳐다보고 있다.

호진 행복의 저금통이라..

S# 9 놀이터 / 밤 / 회상

할아버지가 호진에게 앞의 저금통을 건넨다.

호진 (저금통을 받으며)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행복의 저금통.

호진 (웃으며) 할아버지도.. 세상에 그런 게..

할아버지 여기 돈을 넣으면 행복을 불러 올 거야.

S# 10 호진의 집

저금통을 보던 호진이 벌떡 일어난다.

호진 내가 초딩도 아니고.. 유치하게

호진이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저금통을 본다.

호진이 저금통에 만원을 넣는다. 잠시 적막이 이어진다. 전화벨이 울린다. ‘성재’다

호진 무슨 일이야?

성재 그때 말했던 펀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계약 건이 잘 돼서

호진 (기쁜) 어.. 어.. 그래 알겠어. 아니야, 내가 고맙지 그래 고맙다 친구야.

S# 11 세명 은행

호진이 자리에 놓은 금색 저금통에 만원을 넣는다.

명주 뭐냐?

호진 (웃으며) 행운의 저금통 (고객이 오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명주가 이상한 듯 보는

S# 12 몽타주

- 오는 손님을 맞는 호진 그 뒤로 쪽 이어진 줄
- 직원 실적표에서 호진의 그래프를 올리는 지점장
- 호진이 손님을 하나 둘 맞을 때마다 올라가는 호진의 그래프

S# 13 지점장의 방

직원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지점장에게 꽃다발을 받는 호진

지점장 (기쁜) 축하한다. 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지점장에게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호진.

S# 14 호진의 집

탁자 위에 술과 족발이 올려져 있고 호진의 맞은편에는 금색 저금통이 놓여있다.

호진이 저금통 앞에 놓인 술잔에 술을 따른다.

호진 고맙다. 정말 너 땀에 내가 팔자 뻘어. (족발을 집어 먹으며 환하게 웃는다)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호진이 보면 '아버지'라고 뜬다.

호진 (전화를 받으며) 아버지!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기쁜 얼굴로)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호진아 너희 엄마 암이란다.

호진 (놀란) 네? (눈물이 펑 도는) 얼마나 아프신데요..

아버지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호진 얼마나요?

아버지 천만원 정도라는데.. 역시 대출을..

호진 안돼요. 이미 제가 대출이 있어서 은행에서 더 못해요.

아버지 그럼 사채라도..

호진 (발끈하며) 미쳤어요?

아버지 (큰소리로) 그럼! (작은 소리로 울먹거리며) 어찌란 말이나. 너희 엄마 이렇게 아픈 건 처음 본단 말이야.

호진 (마음이 아픈) 일단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호진이 전화를 끊는다. 손으로 얼굴을 덮는다.

S# 15 지점장의 방

지점장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다.

지점장 예.. 예.. 그렇죠.. 예

노크 소리가 들린다. 호진이 들어온다.

호진 (힘없이) 지점장님 보고서 올리러 왔습니다.

지점장 (휴대폰을 손으로 막고) 어 거기 나뉘 (하고 다시 전화를 받는)
 호진이 너털너털 걸어 나가는
 지점장 (휴대폰을 손으로 막고) 아 맞다. 호진. 너 오늘 저녁에 나랑 어디 좀
 가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지점장을 쳐다보는 호진.

S# 16 고급 일식집

고급스럽게 놓인 일식 상에 호진과 지점장이 누군가와 마주보고 있다. 지점장이 누
 군가에게 술을 따른다.
 지점장 (술을 따르며) 백사장님 한 잔 받으시죠.
 백사장(56) 이 받은 술을 마시면서 지점장과 호진을 쳐려본다.
 백사장 (술잔을 내려놓으며) 아무튼 난 생각 없으니 허튼 짓 마쇼.
 지점장 허튼 짓이라뇨. 그냥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 잔 하자는 겁니다.
 백사장 (호진을 보며) 그쪽은?
 지점장 제 부하 정호진입니다. 인사 드려 풍류물산에 백사장님이셔.
 호진 (어색하게 목 인사를 하며) 정호진입니다.
 백사장 자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나..
 호진 예? (지점장의 눈치를 느끼는) 아, 예 행복은 저금통 같습니다.
 백사장 저금통?
 호진 (자신 있게) 예! 저금통에 넣을 땐 작은 500원 일지라도 나중에 모아
 열어보면 큰돈이 되는 것처럼 행복도 작은 노력을 쌓아 가다보면 큰 행
 복으로 돌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사장 (술잔에 술을 따르며) 저금통이라.. (크게 웃는) 재밌는 친굴세
 백사장을 따라 지점장이 웃고 호진은 미소 짓는다.

S# 17 일식집 앞 / 밤

지점장이 짹짹거리는 백사장을 자가용에 태워 보낸다.
 호진 지점장님. 풍류물산라면..
 지점장 이번에 새로 등장한 신흥 기업이야. 회사 돈을 은행에다가 유치시키려
 하는데 간보기를 하는 것 같아. 우리 은행이 꼭 잡아야 될 사람이지.
 호진 (고개를 끄덕이는)
 지점장 그래서 말인데. 호진아. 니가 해봐라. 니가 실적표 올린 것처럼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호진 그치만 아직 저는..
 지점장 너도 이제 승진도 해야지. 이번 일만 잘하면 승진은 문제없어. 거기다

호진 승진뿐인가. 승진 보너스에 실적 보상까지 하면.. 천만 원은 나오겠네.
 호진 천만 원이요?

S# 18 호진의 집

책상 위에 우두커니 놓여있는 저금통. 호진이 저금통을 바라보고 있다.

S# 19 스크린 골프장

호진이 골프장의 벤치에서 호진이 앉아 있다. 저금통에 오만 원을 넣고 저금통에 뽀뽀를 한다. 백사장이 찢뜩거리며 비서와 함께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으로 들어온다. 호진이 백사장을 따라 들어간다. 사장이 골프를 칠 준비를 한다.

호진 사장님. 여기 저희 은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저희 은행은 지금까지 고객 만족도 부문도 1위중이고 또

백사장 (골프 자세를 취하며) 내가 또 하나 물어보지. 지금 은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호진 네? 그러니깐..

백사장 이번엔 내가 답하지. (골프공을 치고 호진에게 돌아보며) 고객에 대한 분석일세.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 고객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디 쓰겠는가.

호진이 어리둥절하여 백사장을 쳐다본다.

백사장 (다시 골프 자세를 취하며)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네. 일주일 안에 그걸 선물 해오는 은행이 우리 회사 돈을 가져갈 수 있네. (하고 골프공을 친다)

S# 20 호진의 집 / 일출

탁자에 노트북을 보고 있는 켄한 얼굴의 호진. 위키피디아의 풍류물산의 개요를 읽고 있는 호진.

호진 벌써 8시네. (저금통을 보며, 앓는 소리로) 넌 왜 이럴 때 조용하냐.

전화벨이 울린다.

호진 (기빠하며) 그럼 그렇지.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점점 굳어지는 호진의 얼굴.

S# 21 세명 은행 뒷문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명주. 호진이 헐레벌떡 뛰어온다.

명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호진 (숨을 헐떡이며) 미안. (걱정하는 표정으로) 어떻게 됐어?
 명주 일단 지점장님이 막고는 있는데.. 그러니깐 내가 계약보다 계약 후 관리
 가 더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호진 (걱정하는 표정으로) 지점장님 많이 화나셨겠지?
 명주 화만 났겠냐? 너 해고 될 지도 몰라. 일단 들어가자.
 명주가 은행 안으로 들어가면 호진이 느린 걸음으로 따라 들어간다.

S# 22 세명 은행

명주와 호진이 은행으로 들어가면 고객들이 돌아가고 있고 지점장은 고객들에게 연
 신 고개를 숙인다. 지점장이 돌아보면 호진과 눈이 마주친다. 지점장이 호진에게 다
 가온다. 호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침을 삼킨다.
 지점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뭐해? 자기 일이나 봐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호진과 명주가 이상하여 지점장의 방을 보는

S# 23 길 / 밤

땅을 보고 걸어가는 호진. 호진이 멀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지점장을
 발견한다.

S# 24 포장마차 / 밤

지점장이 자신의 술잔에 술을 따른다. 호진이 슬쩍 다가와 앉는다.
 지점장 왔냐?
 호진이 지점장을 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호진 죄송합니다!
 지점장 (웃으며) 괜찮아. (호진에게 술을 따라주며) 요즘 많이 힘들지?
 호진이 지점장이 따라 준 술을 마신다.
 지점장 요즘 열심히 하는 널 보면 생각이 많아. 일 밖에 몰랐던 옛날에 나도
 생각이 나고..

플래시백 - S# 19의 찢뜩거리던 백사장

호진 (벌떡 일어나며) 지점장님. 저 뭔가 떠오른 것 같아요. 죄송한데 먼저
 가 볼게요.
 지점장 그래 가봐. (호진이 포장마차를 나가려는 순간 지점장이 호진을 부른다)

호진아. 지금 내가 뭐갈 해줄 순 없지만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어. 세상
은 공평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니가
한만큼은 널 배신하지 않아.

호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S# 25 공장

분주히 각자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컨테이너와 기계들 사이로 인부에게 호진이 급
실거리고 있다.

호진 (고개 숙이며) 부탁드립니다.

인부 글썽 안 된다니깐.

호진 부탁드립니다!

인부 .. 알겠어요. 따라와요.

호진 (기쁜) 감사합니다.

S# 26 풍류물산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중인 회의실. 백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다. 갑자기 밖에서 웅
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백사장 무슨 일이야?

문이 열리고 경호원을 뿌리치고 호진이 들어온다.

호진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백사장에게 종이박스를 건넨다)

백사장이 종이박스를 열면 낡은 작업복이 있다. 작업복에는 ‘백동철’이라고 이름표
가 붙여져 있다. 백사장이 아련하게 작업복을 바라본다.

S# 27 공장 / 회상

공장에서 힘들게 물건을 나르는 젊은 백사장.

백사장 소리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었지.

S# 28 풍류물산 사장실

백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고 호진이 소파에 앉아 있다. 백사장이 호진에게 받은 작
업복을 입고 있다.

백사장 앞만 보고 달리니 회사는 이렇게 커졌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네.
다리를 다치고 난 후론 더욱 그랬지. 그때 그 열정이 어느 샌가 식어
버린 게야.

백사장이 탁자에 놓인 사진을 본다. S# 27의 인부와 다른 인부들이 백사장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백사장 근데 덕분에 그 열정이 채워진 것 같네. 고맙네.

호진 (기대에 찬 얼굴로) 그럼..

백사장 자네 은행에 내 돈을 맡기도록 하지

호진 (기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 29 세명 은행

책상에 앉아 서류를 읽는 호진. 다 읽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앞에 부하에게 건넨다. 책상 위에 놓인 정호진 과장이라고 적힌 명패.

호진 소리 풍류물산의 돈을 유치시킨 공로로 나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곧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셨다.

S# 30 놀이터

웃으며 놀이터를 지나가는 호진. 가다가 멈춰서 그네를 바라본다. 그네에 여자가 앉아 있고 그 옆에 S# 9의 할아버지가 여자에게 파를 건넨다.

할아버지 이걸 행운의 파일세. 이걸 씹어 먹으면 행운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등짝을 때린다.

할아버지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또 여기서 설치고 있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실랑이를 벌이고 여자는 도망간다. 호진이 광경을 보고 피식 웃고 다시 걸어가며 엔딩.